

# 한국의 석면공해

(첫번째)

안 종 주

(서울신문사 기자)

## 1. 한국의 석면희생자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의 희생자들이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석면가루에 오염되어 있는 것일까.

이러한 매우 중요한 의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나 조사보고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연구나 조사가 부족하다는 정도를 넘어서 전무한 실정이다.

석면의 희생자가 있다고 소리쳐 외칠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석면희생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 천~수 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유독성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해 이처럼 철저하게 무방비와 무지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도 그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것이다.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전국민의 0.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석면이 지닌 시한폭탄과 같은 성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에서 석면을 수입, 석면사와 직포를 짜는 한 중소기업체를 가보자. 노동자는 물론이고 경영주도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모른 채, 옷에 하얀 「죽음의 가루(석면분진)」를 가득 묻힌 채 작업현장에서 조업하고 있다. 당연히 쓰고 있어야 할 방진마스크는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않고 시설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이 공장의 모습이 우리나라 석면제조업체중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상태인 것은 아니다.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영세 석면가공업체에서의 석면오염 상태는 이보다도 훨씬 형편없다.

이 정도의 노동조건이고 보

면 석면폐나, 폐암 악성 종괴종 등 석면이 일으키는 각종 질환 희생자가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수 천 명에 달하는 석면 제조업체 노동자 또는 석면관련 종사자가 그토록 많은 석면가루를 마시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은 상식이하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현재까지 석면으로 인해 석면폐나, 폐암 등 암환자가 발생했다는 공식보고는 아직 1건도 없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국내에는 아직 석면희생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지난 5~7월 국내 10여 개 석면제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노동부산하 노동과학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가톨릭의대 산업의학연구소 윤임중 교수의 이야기를 인용해 보자.

석면폭로 노동자들의 가래 검사 결과 거의 모든 사람에서 상당량의 석면섭유가 발견됐음

니다. 1~2명에서는 석면폐환자에서 나타나는 撻髮音(머리카락 만질 때 나는 소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교수는 석면기업 종사노동자들중 고농도로 폭로되고 있는 노동자들 230명에 대해 진찰을 했으며 자세한 연구결과는 좀 더 시일이 지나봐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석면희생자를 찾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석면업체종사자들이 직업을 바꾸거나 퇴직하는 경우 추적조사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석면희생자의 대부분은 최초로 폭로된 때로부터 15~40년 후 각종 석면폐증, 폐암, 중피종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희생자가 발생해도 의사들은 석면재해가 아닌 그냥 단순한 사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확하게 희생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노동자등록카드제도를 도입해 누구든지 언제라도 정부차원에서 직업병 여부를 진단·치료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우리나라 석면관련제품생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여자이고 대개 2~3년 근무하다 그만두거나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석면희생자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실정이다.

실제로 석면희생자들은 고농도로 석면분진에 폭로되는 석면제조업체 노동자 뿐만이 아니다.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석면광부의 아내나 석면광산 세탁부 등도 똑같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았다. 석면제품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무직, 석면제품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건축노동자 등 석면과 자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석면희생자 명단에 이를 기회가 있는 것이다.

만약 국내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견된다면 그 숫자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사생관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검을 꺼리고 따라서 석면희생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른채 넘어가기가 쉬운 것이다.

또 지금 이 순간에 석면희생자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그 숫자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석면희생자의 대부분은 폭로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발병되며 특히 이것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 저농도로 폭로된 사람에게서도 문제가 되는 이들 질환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2. 석면업체수와 종사자 수도 모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희생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조차도 불확실한 것처럼 석면기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공부 한 관계자의 말을 빌면 외국에서 전량 수입되는 석면원자재는 슬레이트를 만드는데 60%, 방직용과 건축내장재에 각각 10%, 가스켓 등 패킷용으로 15%, 기타 브레이크 라이닝제조 등에 쓰인다고 한다. 정부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석면기업체수는 모두 17군데(1696명)로 석면 슬레이트제조업체 2군데(426명, 4만5천t), 석면방직업체 7군데(584명, 3천t), 브레이크마찰재 제조업체 5군데(235명, 3천t), 기타 3군데(441명, 9천t) 등이며 이들 석면제품을 이용한 이차가공업체들은 대개 영세한데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이 어디에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에서 10여 년전에 사용금지된 곳까지 석면이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다.

각종 패킹재, 석면로프,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사, 가스켓, 석면장갑, 석면판, 석면시트, 석면지,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등 외국에서 사용되는 용도 외에 선진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건축물도포재, 내장재 등에도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 건축노동자들은 석면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없이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을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은채 허물고 있다. 또 미국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사용금지된 석면의 건축물 도포도 마구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지하철내부에도 내화재와 방음재로 석면이 사용됐다. 병원에서도 석면이 사용됐다.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각종 질환을 고쳐주는 의료기관에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석면폐, 폐암 등의 불치병에 가까운 질환을 유발하는 석면을 온수파이프를 감거나 내화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가장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곳에서조차 무지때문에 병원근무자는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건강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병원관계취재를 해온 필자는 한 대학병원에서 스팀용 온수파이프주위가 석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다. 뜨거운 쇠파이프에 사람의 손이 닿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모양이었다. 온수파이프가 굽어진 부분에는 석면을 테이프로 둘러싼 부분이 남아 터져 석면가루가 너덜거리는 것을 봤다. 「아니 저건 석면이 아니오」라는 질문에 병원관계자는 아주 잘 알아 맞춘다는 듯이 「예, 석면 맞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아니 저건 사람몸에 해로운데, 더군다나 지하층에서 그런 것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빨리 감아주던지 하십시오」라는 필자의 말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듯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정부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무지했으면 지하철에 석면을 마구 사용할 수 있던 말인가. 올해 초 서울시는 건축자재 원료규격기준에 석면도 포함시켜 마치 강력한 발암물질인 석면을 건축자재로 권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이러한 시책을 펴는 사람도 석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음이 틀림없다.

### 3. 환경행정과 석면공해

석면분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석면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수 천 종을 헤아리는 석면제품이 우리 주위에 넘쳐흐르고 있고 석면을 사용한 건물도 곳곳에 있다. 석면공해는 단순히 석면제품업체 노동작업장 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마시는 공기를 오염시키고 우리들의 건강, 더 나아가 자손들의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유독물질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환경이 석면으로 얼마만큼 오염됐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정책·행정이 얼마나 무사안일한가를 잘 나타내주는 증거이다.

한국의 환경정책은 무언가 시끌시끌해지고, 마스크에서 떠돌고, 데모 등 집단행동을 해야만 비로소 관심을 가지는 타성에 젖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

고서야 석면공해에 대해 아무런 정책을 세우지 않을 수 있는가. 환경청은 아직 석면공해에 대해선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보겠다」 「석면은 특수오염물질로 규정하겠다」 「건축물을 헐 때 석면분진이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겠다」 등등 나올법한 이야기도 한 마디 없다.

환경청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여론이 비등해야만 움직이는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되며 석면공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계몽이나 교육 그리고 환경정책을 펴야 한다.

일본 환경청은 수 년 전부터 석면의 대기중 농도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석면제조업체 주변·대도시·농촌·산간지방 등 전국 곳곳에서 샘플링을 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석면제조업체 주변의 석면분진농도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고 대도시가 시골보다 석면에 많이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에 대해 가장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있는 미 환경보호청은 석면을 건축용 방화재로서 사용 금지토록 하고 건축물을 헐때 석면이 대기중으로 방출되지 못하도록 규제한데 이어 최근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모든 분야에서 석면을 사용금지시켜야 한다는 석면사용 전면금지제안을 내놓기도 할 정도로 반석면공해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